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11.10(금) ~ 2023.11.16(목)

제공일시 2023 11 2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11.10(금) ~ 2023.11.16(목)

제공일시 2023 11 2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유럽판 IRA' 핵심 원자재법, 최대관문 통과

-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자체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한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이 시행 초읽기에 들어감
- 최종안에 따르면, EU는 역내 채굴 목표치는 10%, 가공·처리는 40%, 재활용 비율은 25%로 잠정 합의함
- 또, '전략 원자재'에는 알루미늄이 추가돼 총 17개로 확대됨. 전략 원자재는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항공우주, 방위기술 등 핵심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원자재 중 수요와 공급망 차질 위험 등을 고려해 설정한 것으로 별도 규정을 적용받게 됨
- EU는 이미 전략 원자재로 분류된 천연 흑연 외에 향후 합성 흑연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이 밖에 신규 원자재 추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최대 27개월 이내, 가공·재활용 프로젝트는 15개월 이내로 사업 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도 합의됨

(문화일보 2023.11.14) 이현욱 기자

(세계일보 2023.11.14) 이귀전 기자

(연합뉴스 2023.11.14) 장빛나 기자

2. EU, 수입산 화석 연료 메탄 배출 규제안 합의

- 유럽연합(EU)이 2030년부터 수입되는 원유 및 가스의 메탄 배출량을 규제하는 법안의 최종안에 합의함. 합의안은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두 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채택됨
- 15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기업들은 2030년부터 원유 및 가스, 석탄 등 화석 연료를 EU에 수출할 시 EU의 메탄 배출량 제한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고 밝힘
- 석유, 가스, 원유 부문의 에너지 기업들은 자사 인프라의 메탄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해야 함. EU의 메탄 배출 한도는 법안이 시행되기 1년 전에 EU 집행위원회가 정함
- 메탄 배출 규제안이 실행되면 미국, 알제리, 러시아 등 주요 화석 연료 수출국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 이 큼

(아주경제 2023.11.15) 윤주혜 기자

3. 미중 '지구온난화 공동대응' 합의... '모든 온실가스' 감축한다

-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이 지구온난화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함
- 이번 합의에 따르면, 양국은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기 위해 힘을 기울이겠다는 데 약속함
- 석탄·석유·가스 발전을 대체하기 위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됨. 그 일환으로 양국은 '모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로 동의함
- 다만, 이번 합의에 그간 쟁점이 됐던 중국 측의 석탄 발전소 건설 중단이나 화석 연료인 석탄 사용의 단계적 철폐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양국은 기후 특사가 공동으로 주재하고 양국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2020년대 기후 행동 강화 워킹그룹'도 가동하기로 함

(천지일보 2023.11.15) 최혜민 기자

1. 정부, 2025년 전남 나주에 '전기차 탄소중립센터' 설립... 폐배터리 이력관리 일원화/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민간 주도 거래 시장 열린다

- 정부가 폐배터리 분리·운반·보관, 회수를 처리할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센터'를 2025년까지 구축하기로 함
- 환경부는 13일 454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 전남 나주에 전기차 탄소중립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
- 전기차 탄소중립센터는 전국 4개 권역(경기 시흥·충남 홍성·전북 정읍·대구 달서구)의 폐배터리 거점수거센터에 수거된 폐배터리를 재사용·재활용할 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력을 관리할 예정이다
- 한편, 배터리 3사, 현대차 등이 참여 중인 배터리 연맹(얼라이언스)은 14일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
- 업계(안)은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전기차에서 분리되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함. 또,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가칭 '배터리 여권제도(통합이력관리시스템)'의 도입도 제안됨

(문화일보 2023.11.14) 정철순 기자
 (머니투데이 2023.11.14) 이세연 기자
 (머니투데이 2023.11.14) 최민경 기자
 (에너지데일리 2023.11.14) 변국영 기자
 (전자신문 2023.11.14) 윤희석 기자

2. 뼈격대는 'EPR'... "중국산 LFP 배터리 매립량만 늘어"

- 환경부가 중국산 LFP 배터리의 재활용 방안 및 EPR(생산자재활용책임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오히려 순환 경제에 적신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
- 재활용 및 재사용이 불가능한 중국산 LFP 배터리의 매립량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임
-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폐배터리를 EPR에 포함하는 방안을 밝혔지만, 최근 업계 반발로 철회함
- 현재 환경부가 중국산 LFP 배터리의 EPR 도입을 먼저 검토하는 이유는 재활용·재사용이 어렵기 때문임. 이 경우 매립 이외의 대안이 없는데, 순환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조치로 평가됨
- 문제는 국내에서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도입이 본격화되는 흐름임.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차 이용이 가능해졌지만, 향후 중국산 LFP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미비함

(쿠키뉴스 2023.11.12) 조은비 기자

3. "기업들 편법 씹짓돈 차단" 탄소배출권 취소기준 완화

- 환경부는 내년 발표할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에 무상으로 할당한 배출권을 '할당 취소'하는 기준을 지금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현재 90% 수준인 무상 할당 배출권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임
- 정부는 기업·시설별 할당된 배출권의 90%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남은 배출권은 이듬해로 이월이 가능함.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면 감소한 양만큼 배출권을 회수함
- 하지만 배출권 할당량은 많고 '할당량의 50%'라는 배출권 회수 기준도 낮다 보니 기업이 무상 배출권을 팔아서 이익을 거둔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음
- 환경부는 할당 취소 기준도 상향하고, 현행 90 대 10인 무상·유상 할당 비율도 조절될 것으로 전망됨

(매일경제 2023.11.13) 류영욱 기자

4. 횡재세 다시 추진?... 긴장하는 정유업계

- 정치권에서 재점화된 횡재세 논의에 정유업계가 긴장하고 있음
- 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유가 상승과 고금리로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는 정유사들과 은행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임. 아직 여당과 정부는 반대하고 있어 도입이 실제 이뤄질 지는 미지수임
- 업계에선 먼저, 유럽의 횡재세 도입과 한국 상황은 다르다고 주장함. 국내 정유사들은 돈을 내고 원유를 사오는 만큼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유가 변동에 민감하고 정제마진 하락 시 수익이 급락함
-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점도 횡재세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임. 기업들의 경우 이익이 많이 발생했을 때 과거에 발생한 손실분을 제외하고 남은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횡재세의 경우 부가가치세 형식으로 적용될 수 있어 두 번에 걸쳐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임

(뉴스 2023.11.13) 김동현 기자

1. 아마존, 폐탄광에서 첫 번째 브라운필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발표

- 아마존은 산업오염으로 버려진 브라운필드(brownfield)에 건설할 첫 프로젝트를 포함해 올해까지 총 79건의 신규 태양광 및 풍력프로젝트에 투자했다고 밝힘
- 첫 프로젝트는 'Amazon Solar Farm Maryland-CPV Backbone'으로 최근 폐쇄된 메릴랜드주의 아치 탄광부지에 건설되고 있음. 120년 된 이 탄광은 이전에 45에이커 이상의 석탄폐기물 매립지였음
- 이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메릴랜드에서 가장 큰 태양광발전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30만개 이상의 태양광패널이 갖춰짐
- 미 환경보호국(EPA)은 미국에 45만개 이상의 브라운필드가 있다고 추산함
-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아마존은 현재 479개의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영이 시작되면 매년 7만1900기가와트시 이상의 청정에너지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됨

(ESG투데이 2023.11.14) 수잔 라헤이 기자

2. 테슬라, '세계 최대 리튬 보유국' 칠레 공략 나서

- 미국 전기차(EV) 제조사 테슬라가 세계 최대의 리튬 매장량 보유국이면서도 EV 보급률은 낮은 칠레 진출을 위해 사전 정지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함
-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최근 칠레 현지에서 자동차 판매·제조와 '에너지 및 전기 생산'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테슬라 칠레 스파(Tesla Chile SpA)'를 공식 등록함
- 테슬라는 또,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전문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인 링크드인(LinkedIn)에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출시를 도울 컨트리 매니저' 등 세 가지 직책에 대한 모집 공고를 냄
- 블룸버그통신은 사업 활동을 위한 등록을 했다고 해서 테슬라가 반드시 관련 계획을 추진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사전에 법적인 기반을 닦는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함

(딜라이트닷넷 2023.11.11) 박퍼터슨 기자

3. DAC기업 에어룸, 미국 최초의 상업용 탄소포집 공장 개장

- 지난 9월 마이크로소프트와 사상 최대 규모의 직접공기포집(이하 DAC) 계약을 체결해 화제가 됐던 에어룸(Heirloom)이 본격적인 탄소포집 공장을 개장함
- 로이터와 블룸버그의 보도에 의하면, 에어룸은 9일 미국 최초의 상업용 탄소포집 공장을 공개함
- 에어룸에 의하면, 이번에 공개한 공장은 연간 최대 1000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다고 함. 포집한 이산화탄소는 수백 년 동안 콘크리트에 저장함
- 에어룸은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가격 공개는 거부했지만, 회사는 2030년까지 제거된 탄소 1톤당 100달러(약 13만원)의 비용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임팩트온 2023.11.13) 홍명표 기자

4. 캐나다, 개별시설의 CO2 데이터 감지하는 위성 발사

- 캐나다의 온실가스 배출 모니터링 회사인 GHGsat는 우주에서 석탄발전소와 제철소 등 개별시설의 탄소 배출을 탐지하기 위한 위성을 처음 발사함
- '벵가드'라는 이름의 이 위성은 캘리포니아의 반덴버그 우주기지에서 발사됨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위성 사용은 점점 더 늘고 있음. GHGsat의 데이터는 정부, 과학자, 산업용 등에 판매됨
- 벵가드는 파이프라인, 화석연료시추현장, 농장 등 탄소와 메탄 배출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이를 감지하는데, 최근에는 위성을 통한 메탄 측정도 활발해지고 있음

(로이터 2023.11.14) 니콜라 그롬 기자

1. SK에코플랜트-지자연,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내재화 성공

- SK에코플랜트가 배터리 소재 회수율 고도화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후처리 전반에 걸친 핵심 4대 기술 내재화에 성공함
- SK에코플랜트는 14일 대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자연)에서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 선포식’을 열고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 개발 성과 및 활용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밝힘
- 양사는 폐배터리에서 용매추출 방식을 이용해 추출한 희소금속인 니켈·코발트 회수율이 97%를 달성했다고 설명함. 회수된 니켈·코발트의 순도는 99.9%로 실제 배터리 제조에 쓰이는 광물 수준임
- 이번 기술은 추출제와 공정 최적화 연구를 통해 공정은 최소화하면서 회수율은 극대화한 것이 특징임

(대한경제 2023.11.14) 박홍순 기자

2. 현대건설, 유럽 에너지 기업 RWE와 차세대 에너지 사업 협력

- 현대건설이 유럽 최대 에너지 기업과 손잡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장에 나섬
- 현대건설은 지난 14일 알더블유이 오프쇼어 윈드(RWE Offshore Wind GmbH, 이하 RWE)와 '해상 풍력발전 및 그린수소사업 공동개발'에 대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힘
-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 공동개발 △양사가 개발 중인 사업의 상호간 참여 기회 도모 △그린수소를 포함한 신에너지 분야 신규사업 모색 등에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임

(메트로신문 2023.11.15) 김대환 기자

3. 한화오션, 해상 풍력에 1000억 추가 투자... 해양 에너지 밸류 체인 확장

- 한화오션이 해상 풍력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해양 에너지 가치 사슬 확장을 위한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한화오션은 최근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가 최종 확정되면서 지난 8월 발표한 해상풍력 토탈 솔루션 관련 투자를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힘
- 이를 바탕으로 한화오션이 경쟁 우위를 보이고 있는 해상 풍력 발전기 설치선과 부유식 설비 제품군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이를 위한 기술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임

(매일일보 2023.11.13) 박규빈 기자
(아시아투데이 2023.11.13) 김한솔 기자

4. 삼성물산 건설부문, 세계 최대 용량 액화수소 저장탱크 설계 인증 획득

-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국제인증기관인 DNV(Det Norske Veritas)로부터 세계 최대 용량의 액화수소 저장탱크 설계 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힘
- 이번 인증받은 액화수소 저장탱크의 용량은 4만³(입방미터)에 달함. 이는 초저온 상태의 액화수소를 약 2800톤(t)까지 저장할 수 있는 용량으로 수소차 50만대 이상을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다는 규모임
- 삼성물산은 올해 초부터 세계적인 에너지 저장시설 전문설계업체인 영국의 웨쏘(Whessoe)와 함께 본격적으로 DNV인증을 위한 액화수소 저장탱크 기술개발에 집중해 왔음
- 삼성물산은 이번 액화수소 저장탱크 인증과 설계 역량 확보를 계기로 그린수소·암모니아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조선일보 2023.11.12) 이미호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11.10(금) ~ 2023.11.16(목)

제공일시 2023.11.2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398.7675

EU, 메탄 규제에 잠정 합의... 투명성 데이터베이스와 경보 메커니즘 운영할 것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5일(현지시각) 화석연료의 메탄 배출량을 규제하는 법안에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잠정 합의했다고 밝힘
- 이 법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줄이겠다는 유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메탄 배출량의 MRV(모니터링, 보고, 검증)를 의무화하는 내용임
- EU는 유럽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에너지 부문의 메탄 배출량과 누출을 줄이겠다고 성명에서 밝히고 있음. 사실상, 메탄 영역에서도 CBAM(탄소국경조정제도)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의도로 확인됨
- 집행위에 따르면, 에너지 부문에 대한 EU 메탄 규정은 2021년 12월에 유럽 그린 딜 이행 제안의 일환으로 제안됨. 이 규정은 EU 역내에서 발생하는 메탄 누출을 석유·가스 기업이 감지하고 이를 수리하기 위한 장비에 대한 정기 조사를 수행하여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임
- 2027년부터 열탄광산을 규제하고, 2031년부터는 더 엄격한 조건을 적용하여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임
- EU 집행위원회는 EU가 화석연료의 상당량을 수입하고 있으므로 수입산 화석연료와 관계된 메탄 배출량도 규제 대상으로 두겠다고 밝힘
- EU는 메탄 투명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입업체와 EU 사업자가 보고한 메탄 배출량 데이터를 대중에 공개할 계획임
- 집행위는 전 세계 메탄 배출기업을 모니터링하는 도구와 고농도의 메탄 배출 사건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경보 메커니즘도 구축하겠다고 설명함. 경보 메커니즘을 통해 메탄 누출을 파악하면 관련 국가에 누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전함
- 이 규정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되며, 석유·가스·석탄에 대한 신규 수입 계약은 수출업체가 EU와 동일한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의무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체결하도록 허용함

(임팩트는 2023.11.16) 송준호 기자